



# 5월 보건소식

https://school.jbedu.kr/mujuja

전화)063-322-2419

팩스)063-324-2479

##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조정

보건복지부에서 2024. 5. 1.(수)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“경계”에서 “관심”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른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현행 (경계)	변경 (관심)
----	---------	---------

① 방역조치 :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,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

마스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</li> </ul>	▶ 권고 전환
-----	---	---------

확진자 격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5일 권고 (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)</li> </ul>	<p>▶ <b>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</b></p> <p>(단, 중증환자,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)</p>
--------	--	--

② 의료지원 :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·치료, 치료제·백신 지원은 유지

입원치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건강보험 적용 외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</li> </ul>	▶ 건보 지원 유지, 국비 지원은 종료* *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
-------	--	--

치료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무상공급</li> </ul>	<p>▶ 1인 5만원* 정부 공급 지원체계 유지</p> <p>*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</p>
-----	--	--

백신 접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 국민 무료접종</li> </ul>	▶ 유지('23~'24절기까지)
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

③ 감시·대응 :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

감시 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코로나19 양성자 감시</li> </ul>	▶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
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

대응 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중수본(복지부) 및 방대본(질병청)</li> </ul>	▶ 코로나19 대책반(질병청)
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

##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

5월31일은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지정한 “세계금연의 날”입니다. 청소년기엔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거나,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담배 연기로 인해 간접흡연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, 최근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접근하는데, 성인 인증이 너무 허술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.

<https://www.mbn.co.kr/news/society/5020077>

학부모님의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.

담배 회사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, 흡연자가 되도록 유인합니다. 색깔, 맛, 디자인 등 학부모님께서도 최신 담배의 변화상을 아시고 학생 건강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-현재 흡연율 >

구분	남학생	여학생	비고	
일반담배	6.2%	2.7%	21년과 유사	
전자담배	액상	3.7%→4.5%	1.9%→2.2%	증가
	권련	1.8%→3.2%	0.8%→1.3%	증가

## 전자담배의 위험성

그동안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해 온 권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1급 발암물질인 타르가 더 많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했습니다. 즉 권련형 전자담배에 벤조피렌과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포함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.

#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

전자담배는 '안전'하다?

전자담배는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할 수 없어 오히려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음

일반담배보다 덜 유해?

X

담배연기에는 유해성분이 덜 검출된다고 주장하지만 인체에 덜 해롭다는 근거는 없음

전자담배 '니코틴' 과소평가 NO!

청소년들에게 일반(연초) 담배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될 수 있음

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피워도 괜찮다?

NO!

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규정  
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도 불법!!!

베이핑(vaping)-전자담배를 빠는 행위를 베이핑이라고 부를  
이런 것이 담배라고요!!!

(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담배의 형태들)



대용량 전자담배



권련형 전자담배



시계형 전자담배

씹는 담배

< 담배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>

- 전체 흡연 기간이 길어지며, 흡연량도 더 많아진다.
- 뇌세포 파괴로 기억력, 학습력이 저하된다.
- 청소년은 세포나 조직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성인보다 더 큰 손상을 입는다.
- 약물 오·남용의 관문 역할을 한다.

마약의 위험성

◦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불법광고.접촉,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결제, 국제우편.던지기 등 관련 수법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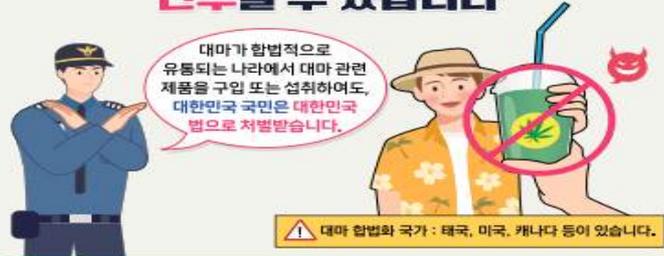
※ ('17년) 119명 → ('23.10월) 481명 / 304% 증가

마약류 예방 카드뉴스 제4호

## 마약류 범죄 연루 예방하기

고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

의도치 않게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



⚠ 대마 합법화 국가 : 태국, 미국,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.

- ▶ 타인이 주는 무언가 때문에, 나도 모르게 마약류를 소지 및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▶ 국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지만, 특히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되기 쉽습니다. 평소와 다른 들뜬 분위기 속에서 경계심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.
- ▶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 등이 합법화되어, 주의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사용 또는 구매하게 됩니다.

※ 출처: 마약류 일반법 근원 제작인 '마약-나쁜', 권세환(2022)

간단한 일이지만, 높은 대가 제공으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

⚠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.

간단한 물품 운반	물품 대신 보관
모르는 타인에게 물품 전달	해외우편물 대신 수령

- ▶ 간단한 일인데, 무료 관광이나 과도한 금품 등을 제안한다면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

※ 출처: '고수의 마약 예방 요령', YTN(2023. 08. 25.)

젊은층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



- ▶ 마약류 은반책으로 이용하려는 주 대상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.
- ▶ 젊은층, 가정주부 등을 노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.
- ▶ 최근에는 청소년을 이용하려는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▶ 마약류 은반자는 단순 소지안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※ 출처: '마약류 징벌요지', 마약 예방법 연구회, 연세대학교(2022. 08. 11.)

개봉된 음료나 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



- ▶ 마약류 중 액상 형태이고, 색깔, 냄새, 맛이 없어 구분이 어려운 약물은 음료나 물에 섞을 경우 표시가 나지 않아 범죄 목적으로 많이 이용됩니다.
- ▶ 낯선 사람이 제공하는 음료, 물, 사탕, 과자 등 모든 음식을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. (개봉하지 않은 것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.)
- ▶ 또한 자리 이동 시 본인의 음료는 꼭 챙겨서 이동해야 합니다.

마약류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 
이제 없습니다  
무주중앙초등학교장